

● 일본의 양계소식



1. 미국산 가금육류 수입금지 해제

농림수산성은 11월 22일부로 미국산 가금육류의 일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미국동부에 위치한 코네티컷주의 양계장에서 조류 인플레인지 항체양성반응(혈청형H7N2)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금페스트 발생을 우려하여 11월9일부터 미국내 가금페스트의 청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가금육류의 일시적인 수입금지조치가 있었다. 그 후 미국 농무성, 재북경 미국대사관 등과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11월 22일까지 코네티컷주의 양계장에 있는 상당수의 닭에서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한 결과, 가금페스트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았고, 다른 양계장에서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금페스트 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많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하였다. 국제수의사무국(OIE)의 기준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 병원성이 높은 것을 가금페스트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고병원성에 의한 혈청형이 H5 혹은 H7 중 어느 것인가로 분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 H5 혹은 H7에 관하여 현지 점에서 약병원성이라도 장래 고 병원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병원성에 관계없이 가금페스트로 정의하고 있다(일본양계협회 자료 인용).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2. 농협의 11월, 12월 축산물 예상가격

일본 전국농협이 지금까지 마련한 금년 11월과 12월의 축산물 시황을 살펴보면, 계란(중간크기)의 11월 평균가격이 170~180엔(₩1,700~1,800, 지난해 가격: ₩1,920)이며, 닭고기는 닭다리가 690엔(₩6,900 지난해 가격: ₩6,290)이고 가슴육은 270엔(₩2,700 지난해 가격: ₩1,910)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12월의 계란가격은 상순에서 중순까지는 산란계의 사육수수 증가로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순 이후에도 연말연시에 대비한 강제환우 등으로 생산량 조절이 실시되어 일정량 출하되는 영향을 받지만 증가추세는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요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일기예보에서 겨울철의 기압배치가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년과 같은 한파가 없기 때문에 계란을 재료로 요리하는 음식의 커다란 수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연말연시를 겨냥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계란의 활발한 판매는 예상하기 어렵고, 더욱이 하순부터는 가공용 계란의 수요감소로 인한 수급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계란가격은 보합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위축에 따른 심각한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소비증가는 기대할 수 없어, 계란은 중간크기를 기준으로 월평균 190엔 전후(₩1,900 지난해 가격: ₩2,200)가 될 것이다. 한편, 일본산 닭고기의 출하계획 수수는 전년대비 99.4% 처리증량은 98.0%이며 광우병 파동에 따른 수요증가로 예년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출하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근년 들어 연말연시의 특별한 수요감소 경향도 있어 금년에는 대형 할인매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가공용과 업소용 원료 닭고기도 일찌감치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므로, 활발한 거래가 기대된다(일본양계협회 자료 인용).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